

약사들, 인터넷보다 신문 선호 '10명중 6명 꼴'

신문-인터넷 둘 다 선호는 20.1%

약사공론 지령 4000호 맞이 설문조사

약사공론은 지령 4000호를 맞아 회원독자를 대상으로 약사공론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

설문조사 시점과 장소는 11월 25일 전국약사대회장이었으며 500건 회수를 목표로 설문지를 돌려 이 중 363건을 회수했다.

설문문항은 4개항이었고 약사사회의 사회적

성향을 읽을 수 있는 문항 한 개가 추가되었다. 교차분석을 위한 기초설문 즉, 남녀 연령 지역별 질문은 생략했다.

이는 약사사회의 구성원이 노소를 막론하고 전문직능인으로서 동질성이 확보된 데다 독자의 남녀 구분이 의미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전국지로서의 약사공론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까닭이다.

관련기사 23건, 기획기사와 고정컬럼이 20건 등이었다.

이 질문은 주로 종이신문에 국한된 것으로 인터넷과는 상당한 차이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즉 지면 독자와 인터넷 독자 기호의 차별성 그리고 지면과 인터넷 기사의 차별성이나 특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시사하는 응답결과였다.

이 같은 가설은 세번째 질문에서 확연히 드러났다.

'약사공론 지면과 인터넷 신문을 통해 좀 더 알고 싶은 정보는?' 이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'약국경영 활성화 내용'이라는 답을 첫째(36.6%, 133)로 뽑았다.

다음은 학술정보(33.9%, 123)였다.

그리고 재테크, 문화 등 생활정보(13.5%), 동료 선후배 등 인물소식(4.7%, 17), 독자기고 컬럼 오피니언(3.3%,12)이 뒤를 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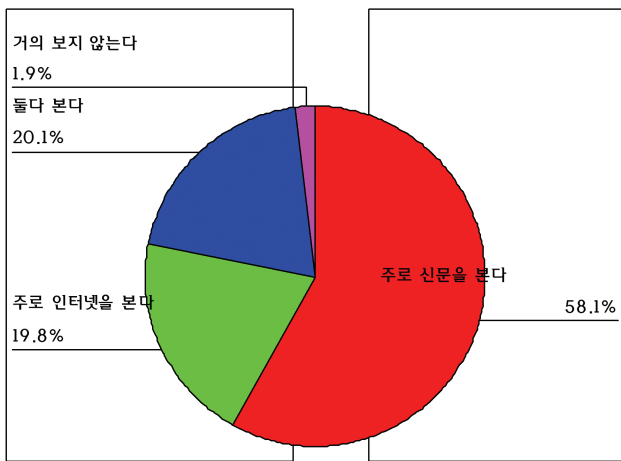
앞서 두번째 질문에서 응답한 '주로 보는 기사'의 우선 순위인 뉴스 보도 기사-학술 의약정보-약국경영 및 시장동향-동정, 인터뷰의 순과는 사뭇 달랐다.

2번 질문에서 주로 본다는 뉴스-보도기사는 3번 답의 약사회 보험 정책 동향을 뜻하는데 4번의 질문에서는 좀 더 알고 싶은 정보의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.

이는 몇 가지로 나눠 해석할 수 있는데 '현재 충분히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느껴서'이거나 '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정보'와 '기대 정보'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.

5면으로 계속

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어떻게 보십니까?



설문

의 첫번째 제한인 '약사공론과 인터넷을 어떻게 보십니까?'에 대해 "주로 신문을 본다"가 58.1(빈도 : 211명 이하 단위 동일)이었고 "주로 인터넷을 본다"는 19.8%(72)이었다.

"신문-인터넷 둘 다 본다"는 20.1%(73)이었다.

추정어기는 하나 인터넷 애용자층이 신문과 인터넷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.

두번째 질문인 '약사공론(지면)에서 주로 보는 기사'에 대해서는 중복질문(2개까지만 표시가능)을 허용한 결과 뉴스와 보도기사 225건, 학술-의약정보 239건, 약국경영-시장동향 145건, 동정-인터뷰등의 사람들(약사공론 지면명)과 취미 25건, 제약산업



경성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

회장 배신자

부회장 구본택
부회장 배은희
총무 강재선

부회장 이영혜
부회장 김대현
총무 이명희

외 동문일동

